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2월 10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행26장 1절-7절

설교제목 :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約 約을 약, 약속하다 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역사**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가?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그립바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청문회장에서 바울이 자기 변증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 ‘손을 들어’로 번역된 ‘엑테이나스’는 ‘뺨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참석한 아그립바 왕을 비롯한 모든 고관들에게 예의를 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 정세에 밝은 아그립바 왕을 상대로 변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인사말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 9:15**에서 언급된 바울의 향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이 너무나 **개인적이고 심리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내가 얼마나 위로받고 있느냐, 얼마나 은혜받고 있느냐,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느냐 보다,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있어야 합니다. 가령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우리의 초점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두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6절에서 바울은 현재 자신이 어떤 이유 때문에 심문받는지 주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약속은 유대인들 역시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약속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메시아를 소망하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가지고 깨어졌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계속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획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계속 딴 짓만 합니다. 이 말도 안되는 끔찍한 이야기가 구약에서 말라기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고 실행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결국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조건이나 신실함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예배드리다가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것은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은혜의 핵심은 우리의 실실하지 않음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자격없는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자격없고, 정말 내버려도 할 말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자격없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바울이 바라는 소망도, 유대인들이 얻기를 바라는 소망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고 핍박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린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제국을 물리치고, 정치적인 독립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도 정작 그 소망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티켓을 확보해 놓고서는, 천국가기 까지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부자의 삶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자신의 평안함을 추구하며 산다면, 우리는 잘못된 메시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메시아는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인데,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는 ‘작은 예수’, ‘예수께 속한 자’, ‘예수주의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메시아’, 메시아께 속한 자, ‘메시아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작은 메시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망하는 것이 다른 자들입니다. 평상시에는 애 키우고, 돈 벌고,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지만 소망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다시 주님의 다시 오심에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바울과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바는 동일하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고, 핍박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